

탐정 카스코디

테헤란에 카스코디라는 유명한 탐정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범인을 잡는데 명수였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탐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페르시아 왕의 보물창고에 도둑이 들어 귀중품을 도난당했습니다. 도둑을 잡기 위하여 경찰들을 다 동원시켰습니다만 결국은 잡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카스코디를 불렀습니다.

카스코디는 궁에 들어서자마자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테헤란의 모든 도둑 전과자들을 불러들이면 범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테헤란의 모든 전과자들이 모여 일렬로 섰습니다.

카스코디는 한명 한명을 꿰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마지막 남자를 보자 말했습니다.

“누가 범인인지 알았다. 자! 이제 집으로 가도 좋다.!”

도둑들이 모두 돌아서서 가려고 할 때 카스코디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왕의 보물 전에 침입한 거기 있는 너, 누가 너도 가도 좋다고 하였느냐?”

그 말을 들은 진짜 도둑이 뒤를 보았습니다. 드디어 잡았습니다.